****

**선교 활동 보고**

**성령강림절 특별 헌금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도록 돕습니다**

유리코 벨트란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 이것이 바로 스물 셋의 그녀가 미국장로교의 [청년 자원봉사자](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yav/)(YAV)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YAV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변화에 제가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YAV 프로그램은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일 년간 봉사활동을 하는 신앙에 기초한 범교회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30년 가까이 19~30세의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기독교적 공동체 생활과 영성 형성 및 사명 발견을 강조합니다. 유리코는 현재 [페루 YAV 현장에서](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yav/sites/peru/) 봉사하고 있으며 선교 동역자이자 현지 코디네이터인 제니 발레스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봉사하며 삶 속에서 극적인 변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니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역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제니는 "페루의 YAV 프로그램의 초점은 항상 구조적 빈곤과 인종차별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많은 파트너들은 수년간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원봉사자들은 LGBTQ+ 공동체의 권리와 도전, 페루의 남성우월주의, 페루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기후 변화, 자기관리, 그리고 문화 간 도전들과 같은 페루 현실에 특수한 문제들을 더 깊이 해결하고자 오리엔테이션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특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직접 들음으로써, 당사자들과 그 어려움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에 공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유리코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은 YAV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국장로교 청소년 트라이에니엄](https://presbyterianyouthtriennium.org/) 과 전국적인 이니셔티브인  ["어린이 교육이 곧 세상의 변화"](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child/)  또한 지원합니다. 특별 헌금의 40퍼센트는 자체 사역 활동을 위해 교회가 보유하는데, 우리 교회의 경우는 이 특별 헌금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40%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혹은 사용하실 것인지를 설명하십시오)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퍼센트는 [미국장로교 선교국](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 차원의 사역에 사용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경험을 해볼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더 정의롭고,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라고 제니는 말합니다. “청년 자원 봉사자 지원을 통해 잠재적인 기부자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걸어가도록 초대합니다. 사람들의 기도와 기부는 한 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생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교회가 올해 5월 28일, 성령 강림절 주일에 특별 헌금을 모금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YAV 프로그램과 새로움과 희망을 제공하고,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여러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